사람인가 바보인가

(눅12:15-21)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람인가 바보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 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지금 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소유가 넉넉하건 넉넉하지 않건 사람의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붙어있지만 생명은 없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목숨은 붙어있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말하자면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들도 멸망이라는 게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존재를 발견할 수 없어서 멸망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옥에 가는 자들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붙어있으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생명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은 목숨이라는 뜻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뜻이 있는 가운데, 생명의 뜻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그게 생명이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가수의 생명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시나 소설 예술작품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독창성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교수의 생명은 연구업적입니다, 기업의 생명은 이윤이고, 정당의 생명은 대권입니다.
연구업적이 없는 교수는 죽은 교수입니다, 가수가 성대에 암이 생겨서 제거수술을 했다면 죽은 가수입니다, 가수로 불렀던 노래들 때문에 로열티가 계속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목소리가 없어져버렸거나 나빠졌다면 죽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나 개인에게 적용시켜보면, 사회적인 신분을 갖는다는 것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인 생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인 성 과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인 성 과부의 목숨과는 다른 것이에요.
나인 성 과부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과부의 생명은 외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내 마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불철주야 뛰는 것의 의미, 그게 생명이에요.
한창 열애중인 남녀에게 생명은 애인입니다, 그 애인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을 일군 사업, 사업가에게는 이 사업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가 남에게 넘어가거나 망해버리면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가수의 생명은 육체미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재산에 있지 않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끔 해주는 요건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요건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부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보야!'라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를 든든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바보라는 얘기에요.
목소리가 나빠진 가수가 가수가 아닌 것처럼,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바보라는 얘깁니다.
사람이냐 바보냐, 양자택일이 아닌 것 같지요?
일단 사람이고 나서, 사람 중에 바보가 있고 바보 아닌 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생명이 없으면 바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느끼는 것, 예를 들어 나인 성 과부에게 외아들, 사업가에게 사업

체, 어머니에게 자식들, 열애중인 남녀에게 애인, 이게 다 생명인 것,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생명이란 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마음이 비어있는 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자기가 제일 먼저 좋아하고 가장 강렬하게 좋아하는 것을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게 돼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 안에 담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가장 좋아하고 제일 먼저 좋아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끔 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기쁨은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현상이 기쁨입니다.
내가 마음에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기쁨이 나오는데,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또 유산을 나누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돈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왜? 가수에게 목소리가 없어지면 가수가 아닌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고 바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교수를 교수 되게 하는 것이 연구업적이고, 가수를 가수 되게 하는 게 목소리라면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빈 마음에 무엇이 들어갈 때 사람이 사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이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제일 강렬하게 요구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리워하는 대상이 될 때에,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에 담고 있는데 현실에는 없을 때 그리워하잖아요,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데 현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청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나인 성 과부에게 외아들이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냐 장로님이냐, 이런 건 문제도 안돼요.
목사라도 문제가 안돼요, 목사라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마음에 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라는 것은 하등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면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대통령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희 씨가 엄청난 재벌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입니다, 그러나 그 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로 가장 강렬하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건희 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요건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된다'
빌게이츠가 하나님을 비어있는 마음 안으로 모셔 들인 게 아니라면 그는 단지 빌게이츠일 뿐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어리석음, 어디에서 발생하는 어리석음일까요?
부자, 이 부자의 상태가 오늘날에도 보편적인 모든 인간의 바람이에요.
노후설계, 확고한 보장 위에 근거된 나의 인생, 이거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배우지 못해 안달복달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리석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음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영혼을 찾을 때 드러납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 마음,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으로서의 마음, 이 마음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몸에 연합되어 있던 인격으로서의 내 마음을 분리시키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게 바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때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가수가 목소리를 잃은 뒤에도 목숨은 붙어서 살고 있지만 가수로서는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목숨은 붙어있지만 사람으로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이때 몸과 분리되면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것들을 담고 사는 자들이 바로 바보들입니다.
나인 성 과부도 몸과 마음이 분리될 때는 마음에 아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몸이 분리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거품이 되어버리고 연기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바보라는 얘깁니다.
자, 여러분은 제일 먼저, 가장 강렬하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을 구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썼지,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전체 맥락과 완전히 그릇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뜻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볼게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채워야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자,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아두지 아니 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둔 것과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아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양자택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재물을 쌓는 데에만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는 일에는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은 돈을 평평 하나님을 생각하며 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자신에게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하여 마음을 투자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의 일평생의 과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수입니까, 가수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장사꾼입니까?
그 모든 일들은 나의 우선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나는 우선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람이 되려면 이 빈 마음에 비록 가수라도 노래를 잘해서 히트곡 하나 만들어내는 것에 마음을 쏟을 게 아닙니다.
그것에 마음을 쏟으면 바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보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순간이 올 때 내 마음은 '노래 한곡 잘해서 히트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마음은 거품을 품은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허깨비를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보로 증명이 됩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에요, 몸과 마음이 분리될 때 '이윤! 이윤!' 했지만 그 이윤이라는 것이 몸이 분리되고 나면 거품이 되어버리고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보로 살은 거예요,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바보로 산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누가 가느냐?
바보들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과제는 가수로 성공하는 것, 교수로 성공하는 것, 장사로 돈 버는 것, 자식 잘 키운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행복해지고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빈 마음 안에 모셔 들인 사람이면 누구나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는 말처럼 항상 기쁘게 됩니다, 항상 만족하게 됩니다,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 활동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표현이 직업이지, 우리가 하는 게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수면 먼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셔 들이면 나는 기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노래 잘 불러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노래하도록 하십니다.
사업가면 돈 잘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안으로 모셔서 사람이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더 이상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서 사업을 하십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목회 잘해서 기뻐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이미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면 목회 잘해서 기쁘고 만족하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목회 하실 겁니다.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될 때 내 마음속에 연기가 될 것들을 잡고 있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직업과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하루 한 순간도 바보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